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564.8	20.6	133,500	-0.7	0.4	-12.2	32.8	93.0	44.6	0.7	0.6	0.7	1.4
현대로보티스	6,962.5	21.7	427,500	-1.3	11.6	-7.2	12.2	5.8	4.8	0.8	0.7	14.1	14.7
현대알렉스트릭	1,178.8	8.6	115,500	0.4	2.7	-5.7	1.3	11.0	9.5	1.0	0.9	9.3	9.7
현대건설기계	1,950.6	10.3	197,500	4.2	17.9	5.8	16.9	12.5	9.3	1.4	1.2	11.7	13.9
삼성중공업	3,400.8	18.7	8,720	0.7	23.2	-24.8	19.0	55.0	27.3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1,930.5	5.2	18,100	0.8	14.2	N/A	30.2	10.2	15.6	0.5	0.5	4.9	3.3
현대미포조선	2,070.0	13.4	103,500	2.0	10.6	2.0	31.5	22.3	16.1	0.8	0.8	3.6	4.8
한진중공업	376.5	5.7	3,550	1.7	9.9	-10.5	7.3	71.4	17.8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1,359.7	34.7	55,200	0.7	4.2	22	1.5	9.7	95	1.3	1.2	14.6	13.3
두산밥캣	3,573.9	27.6	35,650	-0.4	4.5	-4.0	-0.4	13.1	12.3	1.0	1.0	7.4	7.6
현대로템	1,423.8	26.6	16,750	-1.8	-11.4	-7.2	-10.7	21.6	14.7	1.0	0.9	4.5	6.3
하이록코리아	350.5	47.7	25,750	2.6	14.4	16.5	14.4	11.7	10.7	1.0	0.9	8.8	9.0
성광밴드	331.8	15.2	11,600	4.0	17.1	29.6	16.2	1,025.4	41.6	0.7	0.7	0.1	1.8
태광	376.3	16.8	14,200	1.4	21.9	50.1	17.8	84.8	41.4	0.9	0.9	1.0	2.1
두산중공업	1,671.5	9.6	15,700	0.6	-0.9	-20.1	2.3	10.6	83	0.5	0.5	4.7	6.0
두산인프라코어	2,319.2	13.1	11,150	3.7	30.1	22.4	28.3	10.0	92	1.0	0.9	10.8	10.1
두산엔진	289.5	3.4	4,165	1.1	6.7	9.7	13.0	57.7	37.2	0.5	0.5	0.9	1.4
한국항공우주산업	5,156.4	18.1	52,900	-0.8	13.3	-5.9	11.5	33.2	25.1	3.7	3.3	11.4	13.7
한화테크윈	1,756.8	17.0	33,400	-0.9	-3.9	-12.2	-6.0	17.7	13.7	0.7	0.7	4.1	5.1
LIG넥스원	1,192.4	11.2	54,200	1.5	4.7	-30.2	-9.4	15.9	12.5	1.7	1.5	11.1	13.0
태웅	435.2	2.0	21,750	0.7	17.6	31.0	12.4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172.4	4.1	6,390	0.5	30.7	30.3	26.5	-26.6.3	37.8	1.8	1.8	-0.7	5.0
한국기본	283.1	15.5	6,440	0.8	22.7	8.1	20.1	N/A	N/A	N/A	N/A	N/A	N/A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 지수 125p, 중고선가 지수 95p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5p, 중고선가 지수는 95p를 기록함. 대만 CSBC는 China Steel Express에서 20.8만DWT급 Newcastlemax 벌크선 2척을 수주함. 중국 Jiangnan SY Group은 Oriental Energy에서 8.4만CBM급 VLGC 2척을 수주함. (Clarksons)

FPSO contest heads to the wire as final meetings draw to a close

BP의 Tortue FPSO 입찰에서 6개 업체가 경쟁한다고 알려짐. 후보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Modec, SBM Offshore, Technip FMC, 중국 Dalian으로 알려짐. 중국은 Mad Dog 2 때처럼, 가격을 낮추기 위해 BP가 선정했을 가능성이 높아고 알려짐. 또 조만간 최종후보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짐. (Upstream)

조선업계 '작자수주 금지령' 풀린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해양금융융합센터를 통해 새로운 수주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핵심은 국내 대형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을 수주하거나, 국내 선주가 발주한 선박을 수주하면 기존 국책은행의 수주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또 '전략 선종'을 수주할 경우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등을 원가에서 제외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원가보다 최대 6%가량 낮은 가격에 수주가 가능해질 예정임. 전략선종으로는 LNG선, FSRU, 초대형 컨테이너선, 셔틀탱커, VLCC 등이 있음. 일감이 10~15개월치 남은 조선사는 2~3%, 10개월 미만 남은 조선사는 최대 6%까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주를 허용함. (한국경제)

경영 악화에 STX조선 '특수선' 사업 접는다

STX조선해양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중형 탱크선과 가스선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방산과 관련된 특수선 사업을 철수할 계획으로 알려짐.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특수선 사업에서 철수했고, 경영이 정상화돼도 재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STX조선은 올해 수주목표를 20척, 7.34억달러로 잡음. (머니투데이)

Three-cornered fight for Block B platform

베트남 Block B 프로젝트에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McDermott으로 후보가 입찰됐다고 알려짐. 기존 후보는 세 후보 외에 싱가폴 Sembcorp이 포함됐으나, 2017년 말 입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후보에서 제외됐다고 알려짐. Block B의 최종투자결정(FID)은 올해 상반기에 예정됐다고 알려짐. (Upstream)

BP makes subsea choice for Tortue

BP는 Tortue FLNG 프로젝트의 Subsea 패키지를 McDermott과 GE Oil & Gas 컨소시엄에 발주했다고 알려짐. 총 계약 규모는 58억달러로 알려짐. BP는 올해 최종투자결정(FID)을 결정할 예정이며, 2021년 LNG를 첫 수출할 계획으로 36개월 공정으로 프로젝트를 타이트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짐. (Upstream)

Borr Drilling linked to more Keppel jack-ups

Borr Drilling은 최근 싱가폴 Keppel에서 Jack-up rig 6기를 9.6억달러에 구매했다고 알려짐. 작년 6월 Borr Drilling은 Transocean이 Keppel에 발주했던 Jack-up rig 5기를 11억달러에 인수하는 거래를 체결했고, 계약금을 지불함. 관계자는 최근 Jack-up의 가동률증가를 업황 바닥에서 회복으로 판단함.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8년 1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